우암학원 창학 70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MASERATI
Quattroporte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198호 1판 (음력 1월 26일)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無等雪山 무등산이 드디어 설산의 자태를 드러냈다. '눈 없는 겨울'로 올해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무등산 설경이 답답한 지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다. 이틀간 광주 적설량이 15.7㎝를 기록하면서 무등산이 산자락까지 온통 은백색으로 갈아 입었다. 1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천에서 바라본 무등산이 눈에 덮혀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글로벌 AI 표준원' 유치·설립 추진

'인공지능 수도' 선포 … 세계 AI 산업 표준도시 도약 의지
10년간 1조원대 사업비 투입 대규모 AI 집적단지 등 조성

'인공지능(AI) 수도'를 선포한 광주시가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표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첫 사업으로 신기술의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국제전기전자협회(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등을 대상으로 세계 첫 '글로벌 인공지능 표준원' 유치·설립을 추진중이다. 시는 표준원 유치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1조원대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규모 AI 집적단지 등을 조성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AI 중심도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AI석학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혁신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인공지능(AI) 표준원' 국내 유치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토나래리티 회장이자 세계적인 AI블록체인 개발자인 투피 살리바 IEEE 글로벌 인공지능 표준위원장과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 개발 주역인 벤 괴르첼 오픈코드 파운데이션 회장 등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거물들이 참여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포용국가비전위원회는 AI석학들에게 광주시가 도전장을 낸 '글로벌 인공지능 표준원'에 대한 국내 유치 의사를 분명히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투피 살리바 등은 이날 위원회 측이 제안한 표준원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피 살리바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뛰어난 엔지니어가 많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 다 친하다. 국민들이 지적이며 외국을 받아들이려는 문화를 갖고 있다"며 "한국에 인공지능표준과 관련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공지능 전담부서까지 신설한 광주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결정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표준원'을 유치할 경우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견인하는 대표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IEEE 관계자 등을 만나 대한민국과 광주시의 AI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설명하는 등 표준원 설립에 집중하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타 자치단체와 달리 천편일률적인 SOC 구축사업을 잠시 미뤄두고, 'AI산업'을 정부지원 사업으로 과감하게 선택한 광주시는 해당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받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오는 2024년까지 4116억원을 투입해 첨단3지구 4만6200㎡부지에 AI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10년간 사업비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에만 1200억원을 확보했으며, 세계적 수준의 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데이터 산업융합원, 자동차·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과 AI를 연계한 실증 테스트베드(시험시설) 설립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또 AI 고급·전문 인재양성을 목표로 광주과학기술원에 AI대학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사관학교' 신설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차산업으로의 대전환 시기에 AI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중요한 미래 산업"이라면서 "AI산업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2020~2029년)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교생 유권자 법과 교칙 사이 혼란 ▶6면
천득염 건축인문기행 - 미얀마 ▶1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군 공항 이전 총선 이슈되나

시, 민주당 총선공약 반영 요구
정치권 한목소리 내는 게 중요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을 민주당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국회의원 일부 예비후보자들도 민주당 공약 포함을 요구하는 등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총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광주시와는 달리, 전남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총선 국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 5일 광주 총선 예비후보 41명(현재 50명)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협의회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4가지 질문의 답변을 20일까지 보내 달라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또 이 협의회는 중앙당 정책 제안, 대 정부 이전 촉구 활동, 총선 공약 반영, 시·도 정치권 대타협 추진 등 의견과 계획을 물었다.

광주시는 예비후보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당별 후보자가 확정되면 군 공항 이전 추진 공약을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총리실이나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 이전 갈등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약속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광주 군공항 이전을 민주당 총선 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용빈 예비후보(광주 광산갑)와 민형배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최근 민주당 중앙당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광주·전남의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후보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광주·전남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87번 과제 내 실천과제로 준엄하게 담겨 있다"며 "이 사업은 광주·전남의 상생과 성장이라는 주요 가치고, 양 지역의 미래기반과 경제기틀을 바꾸어가는 주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반드시 민주당 총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때에도 민주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간 의견과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